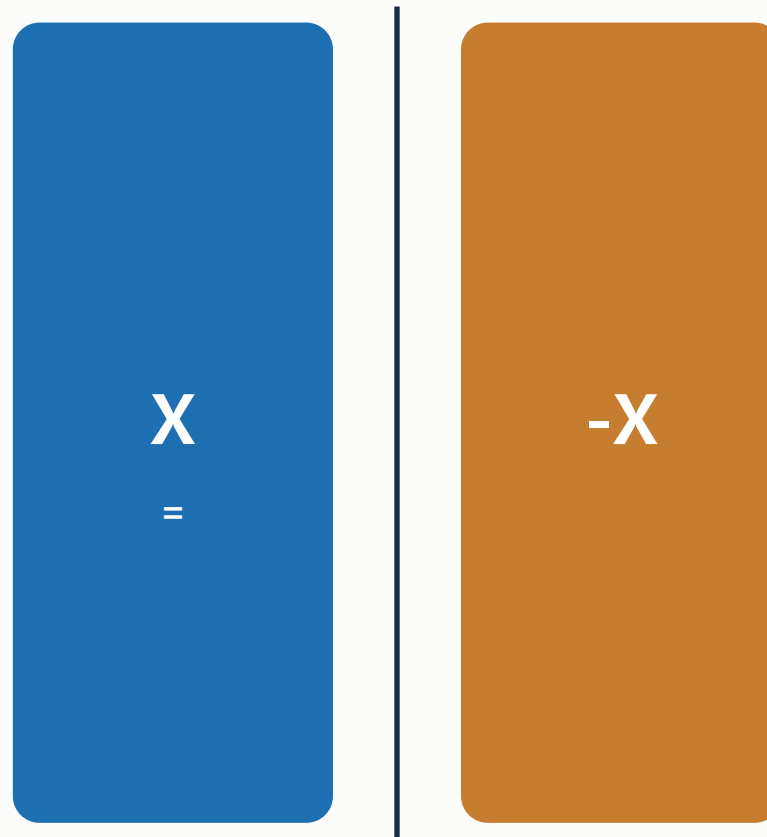


가설과상상총서 ①

4. 상관적 사유의 제3방법 – 공감(共感)

유교적 로고스(Logos): X는 X이고, -X는 -X이다

공감: 관계와 역할을 바로 세움



공감적 사유의 의미

- 공감은 세계사를 바꾼 문명적 동력
- 유교의 인(仁)·서(恕)가 근대 인권을 발명
- 공감은 AI 시대 경제·사회의 조직 원리

유교적 로고스

- 'X는 X이고 -X는 -X이다'의 구분의 윤리
- 정명론: 각자의 역할과 이름을 바로 세움
- 인(仁): 차이를 차별로 만들지 않는 AI 윤리

관계의 기술, 범절(凡節)

- AI 시대의 새로운 예의와 규범 설계
- AI 에티켓의 핵심은 투명성
- 공감 자본: 신뢰를 재구축하는 인간의 힘

욕대(浴帶)와 선악의 분별

- 욕대: 사회 규범을 입고 선악을 구분하는 단계
- AI가 못하는 선악 분별이 인간의 최종 방어선
- 흔들리지 않는 핵심 가치로서의 정체성

4. 상관적 사유의 제3방법 – 공감(共感)

구분	칸트 (서양)	불교 (동양)
도덕 원리	- 의무감, 이성적 당위 강조 - 연민을 통한 도움은 도덕으로 보지 않음 - 최고선 실현을 위한 ‘요청’ (영혼 불멸, 자유, 신)	- 연기(緣起)와 공(空) 사상 - 자비(慈悲)와 무아(無我) - 모든 존재의 상호 연결성
공감 개념	- 직접적인 ‘공감’보다 ‘의무’와 ‘존경’에 기반한 도덕적 행위 강조 - ‘요청’은 실천 이성의 필요성에 따른 개념	- ‘자비’를 통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덜어주려는 실천적 태도 - 모든 사람이 변화하는 존재임을 이해하여 공감 능력 향상 - 갈등 해소의 용이함
AI 시대 시사점	- AI의 비감정적 특성 고려, 인간의 ‘이성적 윤리’의 한계와 초월적 가치 탐색 필요 - AI의 판단 편향성 문제에 대한 ‘규제적 원리’ 설정의 중요성	- AI 시대 ‘관계적 지능’과 ‘상호 의존성’의 중요성 부각 - AI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, 인간의 ‘정신적 초월’과 ‘내면 성찰’을 통한 생존 전략

4. 상관적 사유의 제3방법 – 공감(共感)

구분	헤겔 (서양)	공자 (동양)
도덕 원리	- 변증법적 자기실현 (정-반-합) - 모순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봄 - 윤리적 삶의 단계 (가족, 시민사회, 국가)	- 인(仁), 예(禮) 등 도덕적 덕목 강조 - 수신(修身)을 통한 자기 완성 - 자기 성찰과 실천 강조
공감 개념	- ‘사랑’을 통해 고립적 존재 지양, 나와 타인의 통일된 자기 의식 형성 - 변증법적 과정을 통한 관계의 반성	- ‘인(仁)’의 핵심으로서 ‘측은지심’ 등 공감 능력 내포 - ‘공감’을 통해 타인의 의미 투영 시스템 소유
AI 시대 시사점	- AI와 인간의 ‘모순적 관계’를 ‘발전의 동력’으로 이해 - AI와의 협업을 통한 ‘총체적’ 문제 해결 능력 강조 - AI 시대 리더십에 필요한 ‘관계적’ 이해와 ‘소통’의 중요성	- AI 시대 ‘인간다움’의 핵심으로서 ‘공감’과 ‘인성 교육’의 재강조 - AI가 대체할 수 없는 ‘따뜻한 마음’과 ‘공감력’의 리더십